

학교생활

영재학급, 지원해야 할까요?

고1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자꾸 지원해보라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된다고 해도 100시간을 수강해야 학생부에 기록된다고 하네요. 주위에서 영재학급에 100시간을 투자하느니 내신에 집중하는 것이 입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영재학급 지원해야 할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함소정(47·서울 노원구 상계동)

A

주력 전형이 결정되지 않은 1학년이라면 도전해보길 권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아직 수시나 정시의 주력 전형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은 영재학급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교육과정 외에 수·과학이나 외국어 등 교과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최신 이슈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수한 학생들과의 학습 경험 또한 입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인천 송도고 송영욱 교사는 “관련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영재교육기관, 학년, 영역과 이수 시간으로 딱 1줄 기재된다. 그러나 학생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영재학급에서의 모든 경험을 자소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활동을 해야 쓸 거리도 생긴다. 수도권 대학 종합 전형을 목표로 한다면 이 정도 시간 투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도 영재학급 일정을 계획할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주 전부터는 수업을 넣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 영향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합니다. @

MORE TIP

서울 미림여고 이동현 교사는 “지방 학교나 일반고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본다. 정시에 강한 특정 학교들을 제외하면 내신이 수능보다 경쟁력이 있어 종합 전형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꼭 성공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영재학급에서 연구하거나 산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 도전의식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입시

A 수능 EBS 교재와 강의를 활용해 수능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계 방식에 따라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있습니다.

수능 EBS 연계 대상은 수능을 치르는 그해 고3의 수능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해 강의한 내용입니다. 서울 인천공항공고 정승익 교사는 “2020학년 수능 영어 영역의 경우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수능완성〉 세 권의 교재에서 총 45문항 중 33문항이 출제돼 연계율 73.7%를 보였다. 수능 영어에서 연계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EBS 교재에 있던 지문이 거의 그대로 출제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이 실제 체감하는 연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는 수능과 EBS 연계 교재 사이의 연계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정 교사는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문항 등을 그대로 활용해 출제하는 ‘직접 연계’ 방식뿐 아니라, EBS 연계 교재 속 지문과 중심 내용, 맥락이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하거나 문항이 다르고 있는 핵심 개념, 원리만 공유한 새로운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의 ‘간접 연계’ 방식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간접 연계 문항은 체감 연계율이 낮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수능 EBS 연계’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얘기 중에 ‘EBS 연계율’이 있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EBS 수능 교재에서 수능 문항이 얼마나 출제됐는지를 뜻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연계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남순(50·서울 강남구 대치동)

MORE TIP

2022학년에는 연계율이 50%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올해 수능은 이전과 동일하게 70% 연계 수준을 유지하고, 간접 연계 문항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경기 구리고 박봄 교사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연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듬어진 좋은 교재다. 최근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연계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반복해 공부해야 효과적이다. ‘목표로 삼기보다는’ ‘활용 도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